

문화예술매거진 **에이닝** 4월호

남도인의 꿈이 흐르는 영산강
'전국 축제' 호남예술제 60년史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에이닝' 4월호(통권 234호)가 나왔다. 복간 2주년 특집으로 꾸며진 4월호에서는 나주 평야와 호남평야를 적시며 누대를 걸쳐 흘러온 남도의 강 '영산강'을 조명했다. 전라도 사람들의 내면에 스며있는 영산강의 너른 품과 온후한 인정을 꺼내보고 350리 굽이굽이마다 남도인의 꿈과 추억이 서린 영산강의 이모저모를 담았다.

한 호남예술제의 어제와 오늘을 담아냈다. 기획 '소박하고 느긋한 삶'에서는 빠르게 살기를 강요하는 현대사회에서 한 걸음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슬로우 라이프'를 들여다보며 한박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람이 브랜드'에는 예술거장 백남준과 용인이아기를 담았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백남준의 예술세계와 그의 예술적 궤적이 응집된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를 둘러본다. '에이닝 초대석'에서는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만나 진정한 나눔의 의미와 그가 사랑하는 전라도 얘기를 들었다.

'문화 핫이슈' 코너에서는 최근 '아시아의 빛, 평화(Peace The Light)'를 주제로 열린다. 상영작은 25개국 110여 작품이다. 인류의 평화, 인간의 존엄을 훌륭하게 다룬 감독을 발굴 소개하는 '휴머니티 비전'을 비롯해 '월드 비전', '패밀리 시네마', '한국영화는 지금' 등 9개 섹션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 광주 국제시민영화제는 공모로 전환한다.

또 올해로 5번째를 맞는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드라마어워즈, 아시아태평양청년영화상 시상식도 갖는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중국 관련 프로그램은 올해도 계속된다. 특히 올 5월 2000억 원 규모의 한중 문화펀드가 조성됨에 따라 광주국제영화제가 한중 합작영화제작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중영화 포럼과 마켓, 한중 영화인의 밤, 중국영화주간 '시네마 실크로드', 해외 게스트를 위한 광주-전남 투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한중 합작으로 추진 중인 영화 '노랑'의 광주 전남 로케이션 유치에 영화제 기간 중 광주를 방문할 중국 영화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르몽드紙 위의 이방인

롯데갤러리 내달 2~15일 박인혁전



광주 롯데갤러리는 4월2~15일 '2015년 창작 지원전' 1부 작가로 박인혁씨를 초대해 '시간의 풍경'(Landscape of Time)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올해 지원전 첫 초대작가로 선정된 박씨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 모두 2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박씨의 작품은 신문, 회색화화, 스텝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신문작업은 작가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르몽드 등 일간지에 자화상을 그린 작업으로 시간과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독특한 회색회화는 회색 붓질을 수차례 반복한 결과다. 화폭 위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회색 물감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얼굴로 형상화된다.

전남대를 졸업한 박씨는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문의 062-221-1807~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5월에 만나요

일정 앞당겨 14~18일...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개막식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영화제가 30일 홍보대사(Peace Friends)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정 변경이다. 매년 8월에 열렸던 영화제가 올해는 5월 14~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막식 장소로 활용되며 매년 상영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롯데시네마 충장로점이다.

25개국 110개 작품 상영
국제시민영화상 공모 전환
김영호·강예원 등 홍보대사

포럼·시네마 실크로드 등
중국 관련 프로그램도 지속



30일 광주국제영화제 사무국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가한 금단비·심형탁·강예원·김영호씨(왼쪽부터). <광주국제영화제 제99>

올해 행사는 '아시아의 빛, 평화(Peace The Light)'를 주제로 열린다. 상영작은 25개국 110여 작품이다. 인류의 평화, 인간의 존엄을 훌륭하게 다룬 감독을 발굴 소개하는 '휴머니티 비전'을 비롯해 '월드 비전', '패밀리 시네마', '한국영화는 지금' 등 9개 섹션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 광주 국제시민영화제는 공모로 전환한다.

또 올해로 5번째를 맞는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드라마어워즈, 아시아태평양청년영화상 시상식도 갖는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중국 관련 프로그램은 올해도 계속된다. 특히 올 5월 2000억 원 규모의 한중 문화펀드가 조성됨에 따라 광주국제영화제가 한중 합작영화제작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중영화 포럼과 마켓, 한중 영화인의 밤, 중국영화주간 '시네마 실크로드', 해외 게스트를 위한 광주-전남 투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한중 합작으로 추진 중인 영화 '노랑'의 광주 전남 로케이션 유치를 위해 영화제 기간 중 광주를 방문할 중국 영화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북경전영학원, 중국청년제영화, 광주국제영화제가 공동제작 협의중인 영화 '정음성' 제작과 관련한 사안들도 논의한다.

올해 예산은 시비 2억 7000만원과 기부금 7000만원 등 3억 4000만원이며 국비의 경우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Peace Friends)로는 위원장을 맡은 김영호를 비롯해 강예원, 심형탁, 금단비 등 4명이 활

동한다. 영화배우 김영호는 광주와 인연이 많다. 2001년 광주 영주체육관에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영화 '블루'를 촬영하기도 했던 그는 1, 2회 광주영화제에도 참석했다.

"초창기 영화제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던 기억이 난다. 지난해에는 단편영화 '천사의 노래'를 찍으면서 감독으로 데뷔했다. 배우로 뿐 아니라 감독 입장에서 영화제에 참여하는 거라 느낌도 다르다. 광주영화제가 우리나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

1999년 영화 '태양은 없다'로 데뷔한 김영호는 팔방미인이다. 시집, 에세이집을 내기도 했고 음반도 발매했다. 내년에는 자작 시나리오 '미션'으로 상업영화 감독 데뷔도 앞두고 있으며 영화의 30~40% 정도는 광주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홍상수 감독의 '낮과 밤'으로 베를린영화제에 참석했을 때 영화가 정말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제가 갖고 있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 영화인들에게 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광주가 자기 색깔

을 가진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다. 영화제는 영화인들에게도 축제지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축제이기도 하다."

영화 '퀵' '조선미녀 삼총사' 등에 출연하고 오는 5월 '연애의 맛'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배우 강예원은 "광주는 처음 방문인데 영화제를 홍보하는 건 배우로서 꼭 해

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주로 드라마에서 활동해온 심형탁은 "2005년 '인형사'를 찍은 이후 영화와 별 인연이 없었는데 홍보대사를 계기로 영화와 좀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며 "광주영화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5-꽃빛 축제

포스터 확정...우제길 작품

2015 광주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확정됐다. 광주 출신 '빛의 작가' 우제길씨의 '2015-꽃빛 축제'다.

우씨는 "색과 점, 하나 하나가 빛이고, 한 점 한점 수많은 점이 모여 빛을 이루고 희망, 사랑을 담은 광주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며 "광주국제영화제는 빛고을 광주와 함께 넓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꽃빛 축제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jang Hotel Arirang House. Features text: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and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Includes images of hotel rooms, a seminar, and a family gathering.

Advertisement for Hanyeul Bukgyeong. Features text: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술 북경량'. Includes a map showing the location near KT and Gwangju St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진료문의 (062) 227-7575'.